

AG축구 새 조추첨 오늘 다시한다

조직위, 지난5일 참가국 24개국 4팀씩 개조 조 추첨 끝내
팔레스타인·아랍에미리트 제외 실수...사상 초유 재추첨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조 추첨식이 25일 오후 4시(한국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다시 열린다.

이와 관련 대한축구협회(KFA)는 24일 "지난 조 추첨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추첨이 이뤄진다"며 "참가국 26개 팀이 6개 조에 편성된다. A, C, D, F 4개 조는 4팀씩 편성하

고 B, E 조는 5개 팀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5개팀으로 구성된 B조와 E 조는 다음달 10일 첫 경기를 치른다"라며 "다만 포트에 배정받은 팀들은 다음달 12일 첫 경기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포트는 개최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전 대회인 인천 아시안게임 상위 5개 팀(한국, 북한, 이라크, 일본, 태국)이다.

한국은 B~F조에 들어가며 B조나 E조에 포함되면 다음달 12일 첫 경기에 나선다. 4개 팀으로 구성된 A, C, D 조는 다음달 14일, F 조는 다음달 15일 첫 경기를 치른다.

아시안게임 조 추첨식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대회 주최 측의 실수 때문이다.

조직위 측은 지난 5일 조 추첨식을

을 진행했다. 당시 AFC는 아시안게임 참가국 24개국을 4팀씩 6개 조로 나눠 조 추첨을 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팔레스타인과 아랍에미리트를 빠뜨린 채 AFC에 참가국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조 추첨이 무효가 됐다.

사상 초유의 조 추첨 무효로 한국 대표팀의 평가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팀은 다음달 9일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조 추첨이 무효가 되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스



순천시청 이은경, 양궁월드컵 여자 개인전 첫 금메달 '쾌거'

순천시청 소속 양궁부 이은경 선수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8 현대 양궁월드컵 4차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은경은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에서 독일의 리사 운루를 6-2로 제압했다. 특히, 홈 그라운드인 이점과 독일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은 리사 운루에 맞서 2세트에서는 화살 3발을 모두 10점에 명중시키며 안정적으로 실력을 발휘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에 데뷔한 이은경은 앞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1차대회와 5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2차대회에서 리커브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

한 바 있다.

이번 4차대회에서는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차지하여 순천시청 양궁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은경은 귀국 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진전선수촌 훈련에 합류하여 오는 8월 아시안게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은경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순천시청 양궁부를 알렸다"며 "이번 상경을 이어 아시안게임에서도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우즈, 황제가 돌아왔다...메이저대회 톱10 부활 날갯짓

세계랭킹 2017년 656위→50위로 상승...다음달 WGC 브리지스톤서 통산 80승 도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3)의 부활에 세계 골프계가 술렁이고 있다.

우즈는 23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제14회 디오피 챔피언십(브리티시 오픈)에서 선두에 3타 뒤진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를 기록하며 공동 6위에 올랐다.

우즈가 메이저대회 톱10에 진입한 것은 2013 디오피 이후 5년 만이다.

우즈는 메이저대회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세계 랭킹이 71위에서 21계단 오른 50위로 상승,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출전권을 얻었다.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은 8월 3~6일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 피어어스톤 골프장에서 개최된다. 우즈는 2013년 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우즈는 2016년과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메이저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 그러나 허리 부상에 따른 오랜 공백에서 벗어나면서 옛 기량을 되찾고 있다.

우즈는 랭킹 669위로 2017년 시즌을 마감했으나 올해 꾸준히 랭

킹을 끌어 올렸다.

미디어도 우즈의 부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우즈의 메이저 대회 제패는 시간 문제"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포팅뉴스는 조던 스피스를 인용해 "우즈의 부활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즈는 불혹을 넘긴 나이에 존재감을 과시하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다음달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통산 80승에 도전한다.

뉴스스



정현, 세계랭킹 1계단 하락한 23위...1위는 나달



한국 테니스의 대표 주자 정현(22·한국체대)의 세계랭킹이 한 계단 떨어졌다.

정현은 23일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랭킹에서 23위

1월 호주오픈서 준결승전 '파란'

최근 발목 부상 프랑스오픈 포기

에 이름을 올렸다.

정현은 지난 1월 호주 오픈에서 알렉산더 조비예프(21·독일·세계랭킹 3위)와 노박 조코비치(31·세르비아·세계랭킹 10위)를 꺾으며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

켰다.

이어진 준결승에서 발목 부상이 심해져 '황제' 로저 페더러(37·스위스·2위)와 경기 중 기권했지만 이 대회로 한국 테니스의 간판스타임을 굳혔다.

하지만 최근 발목 부상이 정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현은 5월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 오픈에서 20번 안팎의 시드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발목 부상으로 참가를 포기해야 했다. 지난 2일 개막한 Wimbledon 대회에서도 26번 시드를 배정받았지만 역시 발목 부상으로 출전권을 반납했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시드를 받은 것은 정현이 최초다.

한편, 라파엘 나달(32·스페인)이 4주 연속 남자 단식 부문 1위를 지켰다.

비타민 수액 주사량 100ml 초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롱나 국제 망신을 당한 미국의 수영 스타 라이언 록티(34)가 도핑 규정을 위반, 내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

AP 통신은 24일(한국시간) 록티가 지난 5월 규정이 허용한 것보다 100ml 많은 양의 비타민 수액 주사를 맞아 미국반도핑기구(USADA)로부터 14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록티에 대한 징계는 현지시간 5월24일로 소급 적용되며 2019년 7월 만료된다.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은 가능하지만, 록티는 이번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미국선수권대회와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벌어지는 팬퍼시픽선수권대회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또 내년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도 불발됐다.

록티는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2016년 리우 대회까지 4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일군 세계적인 수영 스타다. 그가 올림픽에서 탄 메달만 12개(금 6·은 3·동 3)에 달한다.

보도에 따르면 록티는 지난 5월 부인과 아들이 아파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의 병원을 찾았으며 예방을



위해 B-12와 다른 비타민이 포함된 수액 주사를 맞았다.

이후 록티는 부인과 함께 수액 주사를 맞은 사실을 자신

"류현진, 부상서 돌아오면 불펜 투수로 뛴 가능성 있다"



LA 다저스의 선발투수 포화현상 탓에 류현진(31·LA 다저스)이 복귀하면 불펜 투수로 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스포츠 매체 '아이스포츠 웹'은 23일(한국시간) 다저스 선발진은 넘쳐나면서 "류현진이 불펜으로 돌아갈 만한 좋은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분석했다.

다저스에는 6명의 선발 투수가 있다. 에이스 클레이턴 커크를 비롯해 해리 힐, 엘릭스 우드, 로스 스트

리폴링, 위커 블러, 마에다 겐타다. 여기에 복귀를 노리는 부상자들이 있다. 류현진과 홀리오 우리아스다.

아이스포츠웹은 "류현진이 부상에서 돌아오면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7명이 된다. 어찌 부상으로 재활 중인 우리아스가 재활을 마치면 다저스는 8명의 선발 투수를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발진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트레이드를하거나 선발 투수를

불펜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마이클 로저를 내려보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아이스포츠클럽은 다저스가 선발 투수를 불펜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재 다저스 선발진 상황을 봤을 때 최소 2명은 불펜으로 가야 한다. 다저스는 지난해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결국 류현진과 마에다를 불펜 투수로 활용했다"며 "류현진은 오래 쉬었기 때문에 다시 불펜으로 갈 수 있는 유력 후보"라고 강조했다.

류현진은 5월3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공을 던지다가 왼쪽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했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초 7월 초나 올스타 휴식이 직후 복귀할 수 있을 듯했던 류현진의 복귀 시기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벌써 3개월 가까이 실전 공백이 있다.

이 매체는 마에다의 경우 불펜으로 보내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선발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마에다는 불펜으로 자리를 옮긴 후 좋은 투구를 선보였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12경기에 선발

로 나서 86%이닝을 소화하면서 7승 5패 평균자책점 3.12를 기록, 안정적인 모습을 자랑했다.

마에다의 불펜행 가능성을 낮게 점친 뒤 "스트리플링도 고려 대상 중 하나다. 스트리플링은 올 시즌을 불펜 투수로 시작했다"면서도 "선발 투수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 스트리플링을 통릴리프로 활용하기 위해 불펜으로 보내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스트리플링은 올해 불펜 투수로 나선 11경기에서 15%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0.59로 견고한 투구를 했다. 선발로 등판한 14경기에서도 80%이닝을 던지며 8승2패 평균자책점 2.36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아이스포츠웹은 "우드와 힐도 불펜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이후 주로 선발 투수로 뛰었으나 과거에는 불펜 투수였다"며 "특히 힐은 너무 많이 던지면 몸집이 잡혀 고생한다"고 돌을 또 다른 후보로 거론했다.

다저스의 5선발로 올 시즌을 시작한 류현진은 부상 이전까지 6경기에서 패배없이 3승, 평균자책점 2.12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 선발 한 자리를 굳히는 듯했다.

하지만 부상에 발목이 잡히면서 선발로 복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기성용, 뉴캐슬 백넘버 4 달고 출격준비

내달 11일 손흥민 속한 토트넘과 개막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기성용이 등번호 4를 달았다.

뉴캐슬은 23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성용이 팀 훈련에 합류한 모습과 더불어 그가 백넘버 4를 받았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기성용은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계약이 만료된 스완지 시티를 떠나 뉴캐슬에 새로운 둠지를 틀었다. 계약기간은 2년이다.

1992년 창단된 명문구단인 뉴캐슬은 지난해 리그 10위를 기록했다. 명장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다.

뉴캐슬은 8월11일 손흥민이 속



한 토트넘과 2018~2019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러시아 월드컵 이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기성용은 23일부터 뉴캐슬 훈련에 합류했다.